



포스트 코로나는

# 포스트 잡(JOB)의 세상 속에서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기초가 달라졌다. 각자의 달란트를 개별의 방식으로 아울러 공유·공감하던 ‘부대낌의 미학’에서 손 안대고 서로의 업무를 나누며 협업해야하는 ‘비대면’의 시류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처럼 사상초유의 재난으로 일컬어지는 코로나19의 마수(魔手)로 인해 하릴없이 스러져가는 직장생활의 애환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위시한 ‘포스트 잡(JOB)’의 이름으로 또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다.



## 면접은 화상으로

VR안경 속에 등장한 화면 속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에 화면 밖의 면접자는 잠시의 머뭇거림 없이 자신의 역량과 다짐 등을 담담히 풀어낸다. 긴장감은 덜하나 긴장을 늦추진 않는다.



## 정기공채 대신 수시채용

백백한 면접대기실에 세상 어느 것보다 무거운 수험표를 들고 초조하게 자신의 면접시간을 기다리는 공채시험장의 풍경,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신 기업은 분야에 맞는 인재 확보를 위한 수시채용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지원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 채용박람회는 온라인을 통해

사상 최악의 경영 환경이지만 젊은 피 수혈을 위한 업계의 노력은 여전하다. 이른바 ‘코로나 채용’이라는 신조어를 양산하며, 개별, 파트너사·지역 강소기업 등이 앞 다투어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핵심역량

디지털  
숙련도

유연한  
사고

데이터  
활용